

도·농간 격차해소를 위한 ‘u-농촌’ 모델 연구 -지역혁신체계적 관점에서-

고영삼*

*한국정보문화진흥원

A Study on the ‘u-Village’ Model for Development Divide Closure between City and Village

Koh Young Sam

Korea Agency for Digital Opportunity & Promotion

E-mail : yeskoh@kado.or.kr

요약

최근 도농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림어촌의 발전을 위한 전향적 모색이 요구되고 있는바, 이 글은 u-IT 및 지역혁신체계의 개념을 통하여 이들 지역의 발전모델을 구성하려는 의도로 연구되었다. 이를 위하여 지역혁신체계의 개념, 농어촌 대상 정부정책, u-IT 적용 기술, 농어촌정보화정책 등을 점검하고서, 지역혁신적 u-농촌의 모델을 만들고자 하였다.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첨단의 IT 고도성장의 시대에 농촌의 저발전 문제는 실로 심각한 문제이다. 60년대 이후 농촌과 농업은 역대 정부의 수도권 중심 성장정책, 도시 중심의 성장정책, 그리고 제조업 중심의 성장정책 들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소외를 당하여 왔다. 그기에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인구감소 등의 인구구조 위기까지 겹쳐지면서 농촌의 존재 자체가 심각한 위기상황에 봉착하고 있다. 오랫동안의 정책소외에 공동체 와해의 위기까지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가속화되고 있는 농촌지역에 대하여, 그 발전의 한 양식으로서 어떤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모델 구성은 현재 우리 농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두 가지의 것에서 영감을 얻어 모색하고자 한다. 두 가지의 것은 ‘지역혁신 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 ‘u-IT’(Ubiquitous Information Technology)이다.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의 구상을 뒷받침해주는 발전모델로서 지역혁신체계의 개념은 도시 지역의 산·학·연·관 혁신 시스템 구축,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추진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정보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u-IT는 특히 도시지역에서 이른바 u-City라는 개념으로써 활용도가 확장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도시지역에 u-City를 구축하듯이 농어촌 지역에도 u-Farm이나 u-Village와 같은 유비쿼터스 기술을 도입하는 사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런데 연구자가 보기에는 u-농촌은 u-City보다 결코 쉬운 사업이 아니다. 도시혁신을 목적으로 하는 u-City는 해당 도시의 특성에 부응하여 차별화하여 추진해야 하지만, 도시에 적용되는 인프라 기술은 비슷하다. 또한 수요도 많아서 민간기업에 있어서도 수익성을 확보하기 쉬운 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투자도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u-농촌에서는 농·림·어촌의 생산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적용되어야

되는 서비스가 상이할뿐더러, IT 인프라가 취약하여 기초 투자비용이 매우 많을 수밖에 없다. 또한 u-기술 및 서비스의 수용자인 농어민들이 투자를 할만치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못한 편이다. 그리고 민간 투자업체를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 결국 유비쿼터스 기술을 통하여 도시지역은 u-City로서 한 단계 더 발전하겠지만, 농어촌지역은 정보격차의 소외에 더하여 경제·생활면에서도 소외를 당할 것이 예견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렇게 유비쿼터스 정보화의 확산을 앞두고 도·농간의 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실에서, u-농촌의 개념, 추진 점검사항, 그리고 모델을 구상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때 지역 혁신의 관점에서 이러한 것을 조망하는 것이 다른 논문과 구별되는 부분이다.

2. 선행연구

유비쿼터스 기술을 농촌에 적용하여 연구한 것으로는, 유기농 분야 연구의 손상목(2006), 국내외 사례 연구의 신상철(2006), 시설재배 분야의 임상철(2006), e-Health 분야의 채종석(2006), 전자상거래 분야의 최승교(2006), 축산분야의 최영찬(2006), 농촌 어메니티 분야의 황동렬(2006) 등의 연구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그 적용 결과에 대하여 평가되지는 않았을지라도, 농업의 특성에 맞는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용하려는 노력의 선두적인 것으로 높게 평가될 만한 것으로 보인다.

균형발전 및 지역혁신체계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적지 않은 보고서가 생산되었는데, 특히 세계의 지역혁신체계의 개념, 유형, 그리고 성공요인에 대하여 분석한 것도 있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6). 김선배(2004)는 지역혁신체계의 관점에서 도시발전 전략을 구상한 바 있는데, 농·산·어촌 도시의 경우 장소자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한세억 등(2004)은 혁신요소들 간의 연계성이 지역혁신체계의 구축과 산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사례분석을 통하여 밝혀낸 바도 있다. 한표한(2006)은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재원, 추진조직, 그리고 평가 등에 대하여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농촌지역의 지역혁신체계 부문에서는 지역에서 사회자본의 형성가능성을

분석한 서진완(2003), 마을단위의 지역혁신 체계 구축에 대하여 분석한 이기원(2004) 등이 있다. 강종원(2004)은 농어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내생적 가능성과 잠재력을 어떻게 발굴하는가의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추진주체별 혁신 역량분석을 통해 농어촌건설운동의 최적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II. 이론적 배경: 지역혁신체계

지역혁신체계(RIS: Regional Innovation System)란 지방정부·대학·기업·연구소 등 다양한 지역 내의 혁신 주체들이 새로운 연구개발·신제품 생산·행정제도 개혁·문화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서로 역동적으로 협력하고 학습함으로써 새로운 혁신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체계를 가리킨다(박동, 2004: 11). 동 개념은 1992년 쿠크(Philip Cooke, 1992)에 의하여 처음으로 사용되었는데, 그 후 90년대 중반에 유럽과 미국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육성 정책을 연구하는 지역경제학자들에 의하여 주로 사용되었다(Cooke, P. et al, 1997; Simmie, 1997; P. Cook & K. Morgan, 1998; J. Mothe & G. Paquet, 1998; H. Braczyk & P. Cooke & M. Heidenreich, 1998).

지역혁신체계는 하나의 혁신이 일어나는 공간 단위로서 지역의 중요성을 명백히 하고서, 이러한 공간 내에서 혁신의 창출과 확산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체계화 시킨 이론이다. 90년대 중반 선진국에서 지역혁신체계 구축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정보 및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국가단위보다 지리적 인접성이 주는 지역수준의 경쟁력이 매우 중요한 변수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지리적 인접성은 원거리가 연결하기 어려운 특별한 접근, 특별한 관계, 더 나은 정보, 강력한 인센티브, 그리고 여타 생산성에서의 이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M. Porter, 1998: 237).

한편, 지역혁신체계 이론가인 쿠크는 지역혁신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를 하부구조와 상부구조로 체계화하였다. 하부구조는 물질적 사회간접자본(도로, 공항, 통신망 등)과 제도화된 기관(대학, 연구소, 금융기관, 교육훈련기관, 지방정부 등) 등으로 이루

어진다고 하였다. 상부구조는 지역의 조직과 문화, 분위기, 규범 등의 요소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쿠크의 관점은 물리적 하부구조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 존재하는 혁신 및 발전의 다양한 주체들의 혁신역량과 이를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시너지 효과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이 타 접근법과 차이 나는 점이다. 특히 네트워킹, 상호작용, 학습, 협력, 신뢰, 규범 등의 상부구조를 강조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도 시사점을 준다(Cooke et al, 1997).

지역혁신체계가 지역의 특수성을 강조하듯이, 선진국에서 논의되어 온 지역혁신체계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에 따라 이해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한세억(2004)은 국내 지역혁신체계를 분석하면서 지역혁신체계에서 지방분권 - 주민차지 - 지역혁신을 상호연관해서 사고할 때만이 효과를 구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방분권이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중앙집권 구조에 대한 개혁이라면, 지역혁신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지역자신의 낡은 패러다임을 창조적으로 파괴하는 주체적 개혁을 의미한다. 지방분권이라는 구조개혁이 있어야 지역혁신이란 주체의 혁신이 가능하고, 지역혁신이 있어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 지방분권 및 지역혁신은 주민자치의 정신 및 실천 활동과 결합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역 내에 존재하는 주민들이 중앙정부나 외부 기업, 외부 제도에의 일방적 도입 등 외부 의존적 태도나 자기 패배적 태도를 가지기 보다는, 스스로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학습하고 토론하고 의사결정하는 식의 내생적 발전(endogenous development)의 주민자치적 태도를 견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지역혁신체계를 특성화 분야별로 분류할 수도 있다. 산업중심 지역혁신체계, 과학기술중심 지역혁신체계, 문화관광중심 지역혁신체계, 인적자원개발중심 지역혁신체계 등이 그것이다. 지역혁신체계의 개념은 이 체계가 구축되는 해당도시의 특성에 결부시켜서 명칭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까지 세계 각국들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된 지역혁신에서는 다음의 공통점이 발견되고 있다(D. Fornahl and T. Brenner, 2003을 박동, 2004: 12-14에서 재인용). 첫째, 지리적 위치, 제도, 정책 조치 등 해당 지역이 갖는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에 대하여 철저히 분석한다. 둘째, 혁신 활동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결정자들이 자기 지역에 혁신활동을 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셋째, 혁신네트워크를 통한 상호협력과 조율, 지식이전 등 지역의 자기증폭과정이 진행된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공통점들 속에 지속적으로 관철되는 것이 바로 '지역특수성'인데, 이른바 특성화 분류가 농촌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를 좀 더 구체화한다면 농촌지역과 관련된 지역농정의 독자성, 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농협, 시·군 행정조직 및 관련 제도, 농업기술센터의 기술개발 및 교육, 지역 소재의 대학, 지역간의 협력을 통한 농산물 생산과 판매 메커니즘, 그리고 주민간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일반 산업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서도 접목이 가능한 것이다.

III. 지역혁신형 u-농촌의 모델

1. 지역혁신형 u-농촌 모델 구성틀

1) 정부의 농림어촌 정책 분석

가. 관주도 하향식 지역개발사업

정부의 농림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한 개발사업은 농림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수산부,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등이 있다. 각 사업들은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서, 특히 산림청의 산촌마을 사업은 마을당 14억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농림어촌 사업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이다.

나. 지역혁신적 지역개발 사업

농림어촌 지역 개발사업 중에서 지역혁신적 관점에서 개발하는 사업으로는 행정자치부의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Happy Korea Project"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신활력사업 등이 있다. Happy Korea Projec는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는 밀집, 농어촌은 인구가 급감하는 현실에서 중앙주도의 획일적인 지역개발로 특색없는 지역이 양산되는 상황을 극복하고자 시작한 참여정부의 사업이다. 동 사업은 이전의 정책과 차별화되어 있다.

<표 1> 각 부처별 농림어촌 유사사업 비교

사업명	녹색농촌 체험마을	농촌전통 테마마을	산촌마을	어촌체험 관광마을	정보화마을
주무부처	농림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사업기간	2002~2013	2002~2009	1995~2007	2002~2009	2001~2014
근거법	농업농촌기본법 농어촌정비법	농업농촌기본법 농촌진흥법	산림기본법	농어촌정비법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마을 수	계획 850	160	193	103	1420
마을당사 업비	조성 123	66	118	48	280
마을당사 업비	2억 원(국비50%)	2억 원(국비50%)	14억 원(국비70%)	5억 원(국비50%)	3억 5천만 원(국비50%)
사업기간	1년	2년	3년	1년	1년
집행예산	246억 원	112억 원	1,921억 원	265억 원	675억 원(3차마을까지)
사업목적	·도시민의 농촌관광 수 요를 유치, 유향·체험공 간을 제공하여 농외소 득 증대	·농촌의 전통지식·문화 자원을 발굴·활용한 테 마마을 조성을 통해 농 촌다운 마을환경 조성	·산초지역의 풍부한 산 림 및 휴양자원을 활용 한 소득원 개발 ·산촌생활환경 개선	·어촌체험을 중심으로 어촌의 자연환경·생활 문화 등과 연계한 관광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어업인의 어업 외 소득 증대	·정보화 소외지역에 대한 인터넷 기반구축을 통해 정보격차 해소 및 농어촌 의 공동체 활성화와 소득 증대 추구
사업내용	·마을 공동의 농촌체험 기반시설 ·마을경관조성 ·생활편의시설 등을 지원	·체험 및 학습시설, 편 의시설, 마을환경 정비 등 ·체험프로그램 개발, 주 민교육 및 컨설팅, 마 을고유 캐릭터 상품 개 발, 홍보 및 마케팅 등	·농·임산물 생산기반시설 과 생활환경 개선 ·다양한 산촌자원을 고 려한 산촌개발 ·산촌체험등의 녹생 관 광 도입으로 농외 소득 증대	·관광안내소, 진입로, 주 차장, 샤워장, 화장실 등 관광 기초기반시설 조성	·마을정보센터 구축 및 PC 무상 보급 ·정보화마을 대표 홈페이지 및 각 마을별 홈페이지 운 영 관리 ·상거래 및 체험관광을 통 한 소득창출 방안 마련

* 주 : 마을 조성 수, 집행예산은 2005년도 포함

* 자료 : 행정자치부·자치정보화조합(2005) 자료를 행정자치부·자치정보화조합(2006: 62)에서 재인용

첫째, 지역의 자율기획과 자기 책임 원칙에 의하여 추진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즉, 지역의 차별적 특성에 기반하여 지역민들 스스로가 지역에서 기획하고 추진하는 형태인 것이다. 둘째, 중앙정부·지자체·지역사회간 협력적 파트너십 형태로서 추진한다. 전략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은 지역민들의 뜻이지만, 실질적인 운용에 있어서 지원 및 진흥을 위한 파트너십을 운용하는 것이다. 셋째, 행정 및 예산을 지원하고, 역량을 결집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행정자치부·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 부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한다. 넷째, 공모를 통해 소수지역을 선정하여 우수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조기 확산한다.

한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신활력사업은 기존 지역개발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낙후지역의 구조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기획된 사업이다. 지역혁신역량 강화, 고부가가치의 6차 산업 창출, 그리고 도·농간 활발한 교류·협력을 정책비전으로 하고 있다. 사업내용을 보면, 제1차년도의 3년

간('05-'07) 총 8,200억 원(국비 5,800, 지방비 1,305, 민자 1,096)을 6개 시·64개 군의 총 70개 지역에 투입할 것으로 추진 중이다. 동 프로젝트는 해당 농어촌의 강점에 따라서 유형화하여 개발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해마다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을 평가하고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촉진하고 있는데, 2005년에는 사업에 대하여 22개 우수 시·군을 선정하여 94.5 억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 바 있다.

본 논문의 주제에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동 프로젝트의 차별화 발전 논리에 의한 계획부분이다. 즉, 행정자치부는 농어촌 지역을 지역 특성에 따라 상이한 발전모델을 기획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그 강한 경제적 기반에 따라 산업형, 교육형, 정보형, 생태형, 전통형, 문화형, 관광형, 건강형 등으로서 차별화를 부각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 내생적 발전 개념의 초기단계 형식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향후 성과여부를 살펴볼만한 것으로 보인다.

2) u-농촌의 개념

<표 2> u-농촌과 u-City의 비교

구분	u-농촌	u-City
공통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공동체에 유비쿼터스 기술 적용 현 단계에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어촌 지역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 지역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임업·어업의 1차 산업 및 생활에 유비쿼터스 IT가 적용됨으로써 생산성이 향상되고 삶의 질이 증진된 농어촌 공동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공간과 물리공간이 고도로 연계되고 공간·사물·사람·활동이 하나로 연결되는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격차 해소 농어촌 지역 생산성 향상 농어촌 지역의 문화·복지 수준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편리한 도시로의 (재)개발 지역 전략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IT 인프라 취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IT 인프라 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자 부족 지역민의 재정능력 취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자 형성 지역민의 기본적 재정능력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대적으로 낮은 IT 서비스 수용 의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대적으로 높은 IT 서비스 수용 의욕

<표 3> u-농촌과 정보화 마을 비교

구분	u-농촌	정보화 마을
공통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어촌 지역에 정보기술을 적용하여 지역 활성화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격차 해소 관점의 접근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임업·어업의 1차 산업 및 생활에 유비쿼터스 IT를 적용함으로써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 생산성 향상, 그리고 삶의 질을 증진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농림어촌 정보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림어촌 등의 정보화소외지역에 인터넷 환경조성, 전자상거래 콘텐츠 구축을 통해 정보화 확산, 정보격차 해소, 주민소득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추진되는 농림어촌 정보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격차 해소 농림어촌 지역의 생산성 향상 농림어촌 지역의 교육·문화생활 지원 농림어촌 지역의 복지 수준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격차 해소 전자상거래 통한 농·임·어가 수익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정보화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RFID, USN, IT SoC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고속통신망, 마을정보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지원 미결 지역주민의 투자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당 약 3억 정부지원 지역주민의 투자 부담은 거의 없음

가. u-농촌의 개념

u-농촌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첫째, u-농촌 사업은 유비쿼터스 신기술의 도입을 앞두고 심화될 도농간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 둘째, 영농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에 따라 제기되는 선진적 영농 및 농림어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 셋째, 현재 수요자가 취약하고 민간 투자자도 쉽게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아 정부차원에서의 기획이 요구. 넷째, 이전에 있었던 유사사업을 활용하여 시범마을과 마을별 모델을 구성하여 추진할 것이 요구.

나. u-IT 서비스 적용방식

'지역혁신형 u-농촌 모델'이란 농림어촌의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주체구성 및 사업추진방식이 고려된 u-농촌의 모델을 말한다. u-농촌은 u-City 와 비교되는, 유비쿼터스 기술이 적용된 농림어촌을 가리킨다. 인구구조의 기형화, 인구감소 및 고령화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사회적 수준이 하락되고 있기에 새로운 발전 모델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농림어촌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유비쿼터스 신기술을 적용한 전형적 본보기를 그려 볼 필요가 있는데, 이를 u-농촌 모델이라고 한다.

<표 4> 지역혁신형 u-농촌의 모델별 u-응용서비스 사례

구분	u-응용 서비스			
	생산	가공	유통	생태환경
농산형	-자동 관개 -웹기반 병충해 진단 -온실재배 환경 관리 -정밀피종 및 수확로봇 -농업기상예보	-유기농 가공 공정 모니터링 -신선도 유지 포장 -농산물 가공자동화	-유기농산물이력관리 -농산물소비자 구매동향 분석 시스템 -농산물 실시간 물류관리	-토양오염인자 계측 -하천범람 모니터링 -온실 내 환경오염 관리 -농업용수 오염상태
축산형	-축사 · 계사 관리 -가축질병정보 관리	-가축 가공공정모니터링 -비파괴 등급 측정 -도축장 자동화	-RFID 품질 관리 -RFID 이력 관리	-가축 질병인자 이동경로 추적 -전염병 조기 발굴
어촌형	-USN 해수관리 -적조 경보	-고급어종 인증 -신선도 측정	-수산물 이력관리 -고가수산물 유통	-수산정보제공 -해일 · 츠나미 경보
산촌형	-소나무재선충방제 -고가 임산물 개체별 생육 정보 관리	-임산물 가공 자동화	-임산물 유통 정보관리	-산불감시망 -산림유역 관리 -산림자원 어메니티
체험 관광형	-포도농장 관리 -화훼류 관리 -버섯재배 모니터링 -녹차생장환경 -도시 소유자 원격 재배 모니터링 -옹기제작	-생육과정의 모니터링 통한 교육 -도시인의 농수산물 가공 체험	-실시간 관광정보 안내 -농수산물 포장 관리	-농촌어메니티 지원 -연안유람선 관광정보 -위치안전 지킴이 -긴급의료 서비스

* 주 1. 정보화 마을에서 추진해 왔던 전자상거래는 5가지 유형 모두에게 적용됨.

2. u-농촌에 적용되어야 하는 u-응용 서비스로서 원격 u-Learning, u-Health, u-Culture 는 모든 유형에 적용됨.

다. 지역혁신형 u-농촌 모델

지역혁신형 u-농촌 농산형, 축산형, 어촌형, 산촌형, 그리고 체험관광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은 u-IT 및 농림어촌의 상황을 분석하

여 만든 것으로서, <표 5>에서 보듯이 각 농림어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u-농촌의 생산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혁신체계를 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 5> 지역혁신형 u-농촌의 모델별 혁신체계

구분	지역혁신체계 구성
농산형	
축산형	
어촌형	
산촌형	-마을 지도자: 이장, 추진위원장, 산촌 숲 해설 · 산림문화해설가, 산촌체험진행자,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 -마을주체: 산촌개발 마을 대표자 협의체, 산촌마을 간 네트워킹 -대학 및 연구소: 임업관련 대학, 산림과학원 -지자체: 시 · 군, 시 · 군의 산림조합 -기타: 산촌자문위원, 외부 전문가, 출향인사
체험관광형	

VI. 결론

이상과 같이 지역혁신형 u-농촌의 모델 구상을 목표로 한 본 연구에서 모델은 농산형, 축산형, 어촌형, 산촌형, 그리고 체험관광형 등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농촌지역은 지역혁신체계를 구성하기도 쉽지 않거니와 u-IT를 도입하는 데에도 현실적 어려움이 없지 않다. 그러나 격차가 가중되는 현실에서 진중한 모색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고영삼(2006). "uCity 패러다임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핵심 고려사항 연구," *Telecommunications Review*, 제16권제5회(12월호), SK Telecom
-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6). 「2005년도 국가균형발전사업 추진실적평가」, 2006.4.
- Cooke et al. (1997). "Regional Innovation System Institutional and Organizational Dimensions", *Research Policy*, 26.